광일보훈대상 영광의 얼굴들 27일 광주시 북구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46회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상이군경 부문 장정식씨, 중상이자 배우자 부문 박정애씨, 미망인 부문 홍옥례씨, 유족 부문 김철규씨, 특별 부문 장영근씨, 김재휴 광주보훈병원장, 하유성 광주지방보훈청장, 정후식 광주일보 이사.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학생독립운동, 총독부 자료로 교과서 서술

내용 틀리고 분량 아예 없어
참여학교 320곳, 194곳 축소
日기록서 우리 기록으로 바꿔야
광주·전남 11개 단체 정정 촉구

초·중·고교 역사 교과서에 실린 학생독립운동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예 서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역사 자료 정비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와 광복회 광주·전남연합지부, 동지회 등 11개 관련 단체는 27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실린 학생독립운동 내용의 검토 및 정정과 상세한 서술을 촉구했다.

이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현재 중등 역사 교과서에는 1929년부터 1930년까지 전개된 학생독립운동과 관련, 조선총독부 자료를 인용해 194개 학교가 참여한 것으로 서술돼 있다. 하지만 이는 2006년 광주시교육청이 학계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미 국내외 320개교가 참여했던 것으로 판명난 만큼 신속히 정정해야 한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국내 초등학교 교과서는 3·1운동이 기록된 것과 달리, 학생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는 실정이다.

단체들은 "현재 교과서 서술은 해방 이후 친일 인사들의 책동으로 선현의 구국정신을 홀대했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정신을 계승하도록 하는데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정부와 교육부에 중등 교과서에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학교가 320개교 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 학생독립운동이 거국적·세계사적 운동이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초등 교과서에 학생독립운동을 서술하고, 국가적인 연구조사를 벌여 교과서 내용이 일본의 기록이 아닌 우리의 기록으로 쓰일 수 있도록 촉구했다.

단체들은 "축소된 서술을 그대로 두는 것은 우리가 70년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일본이 우리를 역사의식이 부족한 국가로 조롱할 게 뻔하다"며 "정부가 역사 복원 차원에서 학술조사를 펼쳐 조선총독부 보고서보다 훨씬 정확한 실상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명에는 광복회 광주·전남연합지부, 광주학생독립운동 동지회,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회,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회,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역사관, 광주자연과학고 역사관, 전남여고 역사관, 광주역사교사모임, 전남역사교사모임, 빛고을 역사교사모임 등이 참여했다. 학생독립운동 90주년 행사는 오는 11월 3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교육감에 돌려달라"

시·도교육감협의회 촉구 성명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반교육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권한은 각 시도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교육 주체와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 본질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서구,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추진

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보고회

광주시 서구가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서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 위원회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사항 설명과 WHO 가이드라인 8대 영역에 대한 전략과제를 제시했으며, 향후 3개년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논의했다.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에서는 서구 지역 노인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욕구파악 결과 발표, 고령친화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서구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출된 의견사항을 수렴, 확정해 다음달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 신청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20	달뜸	01:56
해짐	19:51	달짐	15:07

잠시 물러난 장마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차차 흐려지겠다.

광 주	흐림	21/29	보 성	구름많음	19/27
목 포	구름많음	21/26	순 천	구름많음	21/29
여 수	구름많음	21/26	영 광	구름많음	20/28
나 주	구름많음	20/29	진 도	구름많음	18/26
완 도	구름많음	20/27	전 주	흐림	21/28
구 례	흐림	21/30	군 산	흐림	20/26
강 진	구름많음	20/28	남 원	흐림	21/29
해 남	구름많음	18/27	흑산도	구름많음	19/25
장 성	흐림	20/2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남서	0.5	남~남서	0.5
	먼바다	남~남서	0.5~1.5	남동~남	0.5~1.5
남해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	남~남서	0.5~1.0
	먼바다(동)	남서~서	0.5~1.5	남~남서	0.5~1.5
	먼바다(서)	남~남서	1.0~1.5	남동~남	1.0~1.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3:26	09:51
	15:53	22:51
여수	11:34	05:15
	--:--	18:06

◇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자외선	매우 높음
미세먼지	좋음

◇ 주간 날씨

29(토)	30(일)	1(월)	2(화)	3(수)	4(목)	5(금)
21/25	21/29	21/28	21/30	21/31	21/21	22/31

주말 장마전선 다시 북상…광주·전남 많은 비

잠시 물러났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해 주말동안 광주·전남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 장마전선이 잠시 물러나면서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후 남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29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30일까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27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는 폭이 좁게 동서방향으로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서도 남북간 강수량의 지역 차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1도·전남 18~21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29도·전남 26~30도로 분포할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1도·전남 19~2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1~2도 높고, 낮 최고기온은 광주 25도·전남 24~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1~2도 낮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30일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비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학원생 여제자 성추행 의혹 조선대 교수 해임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선대 교수가 해임됐다.

27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대학 법인은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대학 A교수를 해임하기로 했다.

A 교수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한 뒤 대학원생 3명과 함께 저녁을 먹던 중 여제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동부경찰은 이에 앞서 강제추행 혐의로 A교수를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수는 "남녀 구분 없이 친근감을 표현한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